

# 반달곰 보호 케이블카 정류장 추진 논란

## 구례 등 지리산권 4개 시군, 기준 어기고 제안서 제출 시민모임 “모순행위 즉각 중지” 환경부 “검증 후 결정”

환경부가 추진중인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리산에 설치 의사를 밝힌 4개 지자체 모두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역 내에 정류소를 설치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리산국립공원에 접한 4개 지자체(남원, 산청, 함양, 구례)가 환경부에 제출한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 대상지 제안서’에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모두 ‘지리산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례군의 노고단 인근 KBS중계소 하단부, 남원군의 반야중봉 하단부, 산청군의 제석봉 인근, 함양군의 장터목대피소 하단부가 각각 이 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 기준’에는 정류장 및 지주 설치는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구역,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등을 최대한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4개 지자체가 제출한 국립공원변경계획(안)에는 반달가슴곰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조차 언급돼 있지 않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핵심 생물종 서식·분포지역 및 특이한 지형·지질·경관자원 등 보존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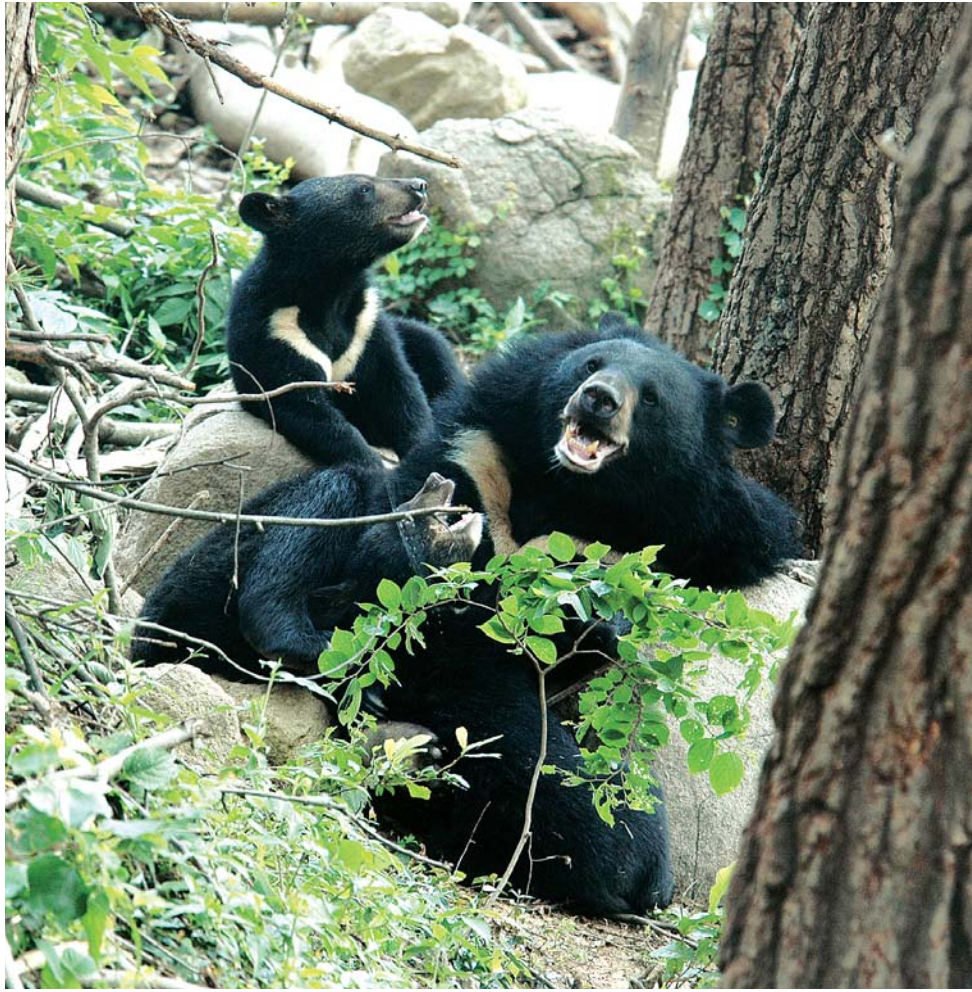
###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검토 대상지



입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 약 5950만5000㎡ 일대를 지리산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역(2007~2026년)으로 지정했다. 지난 2004년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을 처음 방사하고 본격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부터다. 국립공원종원센터는 지금까지 모두 8마리의 반달가슴곰 새끼가 자연번식했으며, 모두 27마리의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처장은 “정부와 환경부가 한편으로는 반달가슴곰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보호구를 지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서식지를 파괴할 우려가 높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며 “멸종위기야생동물의 마지막 삶터



지리산에 방사돼 자연에 적응하고 있는 반달가슴곰. <광주일보 자료사진>

인 지리산의 케이블카 추진 계획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검토기준을 어긴 지리산케이블카 건설 계획에 대해 사실 검증과 국립공원위원회 최종 결정을 통해 결론을 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공원 사도(索道) 시범사

업’으로 케이블카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리산(남원, 함양, 산청, 구례), 월출산(영양), 설악산(양양), 한려해상(사천) 등 전국 4개 국립공원 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청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추진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전남 환경이슈 <5>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5월, 더위에 지쳐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열었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쉰~ 소리를 내며 손에 팔팔 쏟아지니 어는새 무더위도 잠시, 시원함이 손을 타고 발끝까지 전해집니다. “아~ 시원하다 이제 살 것 같네...”

손과 발을 찬물에 씻고 화장실을 나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니 피식 웃음이 납니다. 한 달 전, 모처럼 집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 늦잠을 자고 있는데

“머리는 못 감겠는데 세수할 양치질만 하자”는 생각에 마음은 점점 급해지고 고요한 세수에 양치질은 하는 등 마는 등.

갑자기 얼마 전 영산강유역환경청 소통 홍보대사 발대식 자리에서 이재현 청장님께서 당신이 쓰셨다며 주신 ‘아프리카의 햇살은 아직도 슬프다’라는 책 속의 아프리카 아이들이 떠오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대어섯살 때 보이는 아이들이 몇십리씩 물을 떠러 다닙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염된 물을 마시고 병에 걸려서 죽어 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 물은 생명, 우리 모두 아껴야

아파트 스피커에서 “딩동댕! 관리사무소에서 알립니다. 물탱크에서 청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205동, 206동, 207동 물탱크 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니오 각 세대에서는 쓰실 물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눈을 뜨지 않고 귀만 쫄긋 세운 채 “207동!! 우리 집인데, 예전에도 물탱크 청소한다고 해놓고도 물만 잘 나오던데, 오늘도 나오겠지”하며 다시 달콤한 낮잠에 빠졌습니다.

얼마쯤 자났을까? 일어나 식사를 하고 나갈 생각에 부엌으로 가 밥통을 열어보니 밥이 없습니다. 쌀을 가져와 씻으려고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 물이 쭈뼛 납니다. 허둥지둥 밥을 하고 씻으려는 순간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는 틀림 나오는데 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치질할 때나 머리를 감을 때마다 손 한번 뻗어 잠글 수 있는 물을 습관적으로 틀어 놓습니다.

“썩~”하는 시원스런 물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먹는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물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낭비한 물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은덕 영산강유역환경청 홍보대사

## 백두산 화산 20년 내 분화 확률 99%

### 동일본 대지진 판 운동 탓... 日·러시아까지 영향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백두산이 20년 안에 분화할 확률이 99%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교통신이 보도했다.

다니구치 히로미쓰 도쿄국제 명예교수(화산학)는 최근 백두산이 동일본대지진(규모 9.0) 판(플레이트) 운동의 영향으로 분화할 확률이 2019년까지 68%, 2032년까지 99%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그는 23일 열리는 일본 지구핵심과학연합학술대회에서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니구치 명예교수는 과거의 문헌 기록을 조사한 결과 백두산이 10세기에 대분화를 일으킨 뒤 14~20세기에 적어도 6차례 분화했고, 분화 시점이 늘 일본에서 규모 8.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한 전후였다. 그는 밝혀냈다. 14~20세기의 6차례 분화연도는 1373년, 1597년, 1702년, 1898년, 1903년, 1925년이다.

다니구치 명예교수는 10세기의 대분화가 몇 년에 일어났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869년의 일본 조간(貞観)지진(추정 규모 8.0 이상)과 관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과거 데이터를 기초로 분화 시점을 예측한 결과 2019년까지 68%, 2032년까지 99%라고 예상했다. 원인은 동일본 대지진 판 운동 때문이다.

분화 규모는 최대일 경우 1980년 미국 서부 세인트헬렌스산 분화와 비슷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고, “그보다 작더라도 일본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국립공원서 산나물 캐지 마세요”

### 내달 10일까지 특별단속... 최대 3000만원 벌금

국립공원에서 산나물이나 약초, 버섯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2일 불철을 맞아 지리산, 덕유산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약초를 채취하는 것을 막고자 다음달 1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들을 채취하는 행위는 공원사무소와 협약을 맺은 주민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공단은 최근 들어 산나물 채취관광이나 탐방객을 가장한 전문 임산물 채취꾼이 활동한다는 제보가 있어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건수는 2009년 46건, 2010년 28건, 2011

년 18건 등으로 점차 감소추세이지만 단속의 눈을 피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불법적인 임산물 채취는 탐방로를 벗어난 외진 곳에서 이뤄지다보니 추락, 골절 등 사고위험이 높아 탐방객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도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월악산에서 60대 남성이 탐방로를 벗어난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양기식 국립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탐방 중에 임산물 채취자를 발견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www.facebook.com/iloveknp)나 전화로 공원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환경부, 폐휴대폰 100만대 수거 캠페인... 8월까지

환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폐휴대전화화를 모아 재활용에 활용하는 ‘2012년 범국민 폐휴대폰 100만대 수거 캠페인’을 23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실시해온 폐휴대전화 수거 캠페인은 올해는 100만대 수거를 목표로 이동통신사 대리점, 삼성·LG 등 A/S센터, 하이마트, 이마트, 주민지원센터와 초·중등학교에서 진행한다.

기부자에게는 환경노드 등 기념품을 주고 이마트 등에서는 포인트를 제공하며, 경품응모 기회도 준다. 환경부는 수거한 폐휴대전화는 파

쇄하거나 개인정보를 초거화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이동통신사가 수거한 물량 중 재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재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폐휴대전화화를 사회적기업 등에 매각한 수익금 일부는 행사지원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다.

환경부는 “휴대전화에는 금, 은 등 귀금속과 팔라듐 등 희유금속 등 16종의 금속이 들어 있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며 폐휴대전화 수거에 국민적으로 동참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한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영서건내편)

### 매매교환 전문 빌딩, 모텔 땅 상가 건물

10억이상~100억이상 건물을 급히 구합니다.

각 지역의 골포장 및 예식장을 금매매로 찾습니다.

매수 매도 대가중 30년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높은 수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된 상담받고 있습니다.

### 최기철공인중개사 사무소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주, 전라북도 일원의 부자가 치가 높고 보장된 물건을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물건(경매,공매)들을 안정되고 확실하게 고객님의 취향껏 정리해 드릴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를 가진 본 업체는 고객님의 고품을 이용해서 수수료나 몇천 원의 차이로 금급한 무책임한 중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객은 평생고객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전지역의 사주나, 모텔, 오피스텔, 빌딩, 상가, 대지 등 고객님의 소중한 부동산으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조용히 상담해 주십시오. 소중한 재산 믿고 맡겨만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상가 및 사무나(매매)

지역: 북구 삼각동 (사우나 현 상업중) 면적: 대지 약900평, 건평: 2500평

지역: 칠산지구 월계동(무인빌딩) 면적: 대지: 338평, 건평: 440평 객실: 22실

지역: 광천터미널 부근 모빌하우스(사무기) 면적: 대지: 약1000평, 건평: 2803평

지역: 봉선동 대지 314평 매매

지역: 수원지구 롯데마트부근

빌딩상가 매매 및 분양 중

### 최상의 전원주택 부지 적합

지역: 담양 1만평~2만평이상 5만평~10만평

지역: 장성 1만평~5만평 (각 타지역의 토지 또한 대량 보유하고 있음)

956-6660-010-2139-6255

### 오피스텔 매매

▶총 합계: 보증금 8,250만원 월세 1,425만원

▶지하 핸드폰전시장 1

▶사무실 1, 10평 27.11평 67제, 13평 4

▶토지면적: 509.09㎡(154P)

▶건축면적: 1375.21㎡(416P)

▶매매가 12억 8천만원에서 대출금 5억원과 보증금 8,250만원을 공제하면 실투자금 6억9천7백오십만원으로 월세 1,425만원에서 대출금이자 6% 250만원으로 공제하면 월수익 1,175만원으로 연투자수익 20%이주 우수한 투자입니다.

문의: 011-684-3886

### 상가/원룸 매매

▶총 합계: 보증금 4,500만원 월세 779만원

▶1층 편의점 원룸 21개, 투룸 4개

▶토지면적: 330.58㎡(100P)

▶건축면적: 737.19㎡(223P)

▶매매가 7억4천4천만 (용자 2억4천4백 포함)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세 8백만원 용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금 4억9천 원 월수익 678만원 연수익을 18% 편의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하시면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의: 011-684-3886

### (주)오천경매 투자연구소

H. 010-3605-5000

### 경매투자

- 실전경매 배우면서 돈 버실분
- 투자입찰만 1회비 550만원
- 실전이론만 1회비 55만원
- 3개월 주회 2시간 무료

특수 물건만 전문투자

### 투자자 모집

- 종류: 경매물건
- 방법: 근저당 1순위 설정
- 수익: 연 10~30%

단독 / 공동투자 가능

### 특이점 특허등록: 3개월 우수기업으로선정된법원경매정보대한민국대표사이트!

### 『법원경매』의 길잡이 다와옥션이 함께하는!

검색 | 다와옥션 | 검색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세요!  
www.dawauction.co.kr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주택 / 근린시설

- ▷영광군 영광읍 2층주거 상가주택 대지153평 건평909평
- 김정기2억4천만 최저가1억9천만
- ▷남구 월산동 상업지역 근린상가 대지330평 건평400평
- 김정기2억4천만 최저가1억9천만
-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 근린상가 대지260평 건평395평
- 김정기4억8천만 최저가2억5천만

### 단독주택

- ▷서구 농성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70평 건평81평
- 김정기2억4천만 최저가1억9천만
- ▷서구 화정동 2층주택 대지70평 건평56평
- 김정기1억9천만 최저가1억4천만

### 전원주택 부지 / 창고 부지

- ▷봉선면 대추리 관리지역 대지622평
- 김정기1억3천만 최저가6천4백만
- ▷관산구 임곡동 준주거지역 대지233평
- 김정기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 토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은천방항 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무안군 신화리 농림지역 담 3,000평 매매1억5천만

문의010-4911-4989 (062-268-8949)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